



“근로자의

金福坤씨 (38세, 신한섬유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주시 팔복동). 그는 유난히도 근로자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다.

그가 섬유업계에 몸을 담은지는 13년 정도가 되어간다.

『사업을 하는데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본, 기술, 인력을 얘기합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죠. 인력을 얼마나 잘 지켜나가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그런 측면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장시간의 노동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우선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기생충검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몇년전부터 회사 부담으로 건강관리협회에서 근로자 조합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자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빈혈이더군요.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데서 오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라는 김씨는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항상 규칙적인 생활과 필요한 영양소 섭취에 서로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金福坤씨는 『건강관리는 예방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의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라며 건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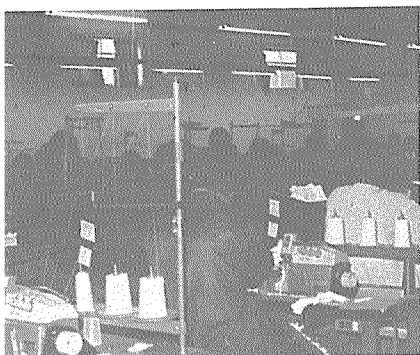
그는 또 『사실 근로자 건강진단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실제로 근로자들이 원하고, 또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어느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해 그가 근로자들에 대해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졌는지를 실감케 했다.

그는 그외에도 근로자들의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관리가 곧 생산성 향상”

-신한 섬유 주식회사 대표이사 金福坤 씨

「봉제업계의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워 진학 대신 취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농촌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배워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그는 현재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근로자중 32명을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고 있다.



그는 근로자들에게 인간의 근본은 “예의”를 지키는데서부터 시작해 정직하게 책임완수를 해내는 것임을 항상 강조하는 훌륭한 선배이자, 아버지이자, 선생님이기도 하다고 주위에서 말한다.

굳이 근로자들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욕먹지 않고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늘날의 세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확고한 신념으로 앞을 향해 달리는 金福坤씨.

그의 그 굳이 자랑하지 않으면서 베푸는 사랑이 바로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까.

○...부인 함영애씨와의 사이에 2남2녀를 두고 취미로 “등산”을 즐기고 있는 그는 가정에서도 훌륭한 가장이다.

◀ 근로자의 복지향상이 장시간 노동보다 더 높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고 金福坤씨는 말한다.

